

충정의 200일전투의 보람찬 열흘이 흘렀다,

성론 용감한 돌격투사가 되자

조국은 지금 천군만마의 기상으로 내달린다.

모두다 200일전투에!

충정의 200일전투에 이어 또다시 새로운 충격전에 부른 당의 피끓는 호소에 천민심장이 격동하고 온 나라가 거창한 두정의 전구로 화하였다.

아마도 지금처럼 믿성이 달아오르고

시대가 끌들은은은한 걸었을것이다.

이 땅을 둘러보라,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듯 천민이 일시에 들고일어났다.

거대한 각전의 화산대를 이루고 밤낮없이 쟁초와 기적의 열풍을 내뿜는 려명거리전선장, 여기서는 불온기가 그저 날리는것이 아니라 하늘로 오르면서 날린다. 수많은 불온기를 이 허우저이는 소스무간도 세 칸되는 사이에 한층씩 쭉쭉 솟구치는 살림집풀조를 따라 오르고올라 건설장상공의 어기서기에서 기적의 표고로 월렬나불간된다. 아들들을 불사르며 떤족 험기는 용길불꽃을 하늘망을 뛰었다놓는 경제선동의 메아리에 저연의 밤도 물벼서 고지면 해도 다시 웃는걸싯다.

4대선행부문의 학도 또한 칸단치 않다. 최고의 실적, 최대의 성과로 200일전투에서 남먼저 통봉총을 부를 기세드높이 전력공업부문의 동포계급이 생산적당국의 불길을 일으키면서 만전으로 석탄폭포를 풍풍풀어낸다. 만리마속도로 내닫는 돌격전에서 주체성상인의 숨결드높은 활성인을 어찌 뛰칠수 있고 자력의 마치를 높이 놓은 대안인들 어찌 더 높은 창조의 아심을 버리지 않으랴.

말만 들어도 귀가 멱쩍드리는 저하초염수에 의한 소금생산방법이 남에남마다 온을 내며 소금사례, 맵금사례에 예고하고 드넓은 험동벌미다에선 파학능법 꽂이우니 벌써부터 포기마다 만족으로 널살님실실했더니 능동근로자들이 데도나도 일손에 불을 끌었다.

거대한 지암을 암은 용암이 터져오르듯 온 나라를 무섭게 짚우하는 기상에 승리는 떠나지에 암울한 것만 같다.

장간을 지경하는 이 기세와 엄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아마도 그것은 『우리는 뼈에 승리하였다』일 것이다.

조선은 그야말로 만리마기상이고 역세계내에서는 힘은 우주만비에로 단숨에 솟구칠 폭발적인 미력을 낳고있다.

격전의 7·0일을 세번 더 한짓과 맞먹는 200일전투, 더 멀고 험준한 전투에 허리띠를 풀세없이 뛰어들었건만 얼굴마다 넘치는 것은 뼈마의 신심이요, 절을마다 둔체 것은 더 촘촘한 비약의 나래이다.

무엇이었는가. 천민의 가슴에 라면지는 굽힘없는 공격전의 불길, 남이 갈수록 용용히 생솟는 이 힘과 용맹은 어디서 시작된것인가.

지금도 눈앞에 어려오는 려사의 소중한 화폭이 있다.

당 제7차대회의 용대한 강령을 받아와 암고 끌없는 환희와 격정으로 설매이는 우리 인민에게 또 하나의 새 회성장을 안겨주시며 지금껏 소문없던 보전선소공장 전설장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밀씨부여 체오가 확연히 안겨오는 광장의 전경에서 보다 광활로운 조국의 배일을 네다보시며 그이께서는 얼마나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었던가.

온 나라 천민군민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한 충정의 200일전투에 전진하게 됐다고 하시며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드높이 전설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것을 열렬히 호소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비아흐로 러지제 뒤 새로운 전투의 예행과도 같았다. 가야 할 투쟁의 길을 맑히는 해물처럼 안겨와 인민의 마음에선 승리의 절정된다.

탄성이 떠져나오지 않았던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전투!

이것이 우리의 200일전투의 자랑스러운 이름이며 바로 여기에 오늘의 전투가 가지는 역사적의미가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해주시었다.

『전체 담당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시에 대한 불리는 충돌과 비상한 애국의 뜻을 알고 충돌하기 하여 세기를 끌고들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과 본래를 훨씬넘어가게 시원하고 아름답다.』

혁명과 돌파구,

이는 맹세할수 없는 하나의 부름파도 같다.

혁명은 만리마로가 아니다. 혁명이 최후승리를 위한 활약이란 그 자체로는 경승장과의 일진이나 『가을』이 펼쳐지리라.

목표는 높고 파업은 당대 하지민 인민의 마음은 신심파 용기로 가득차 있다.

우리는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7·0일전투의 영예로운 승리자를 불러우며 축복의 불길을 향해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으로 충명해보인다.

돌파구이자 전개의 대통로를 어느 요정통이고 더 큰 승리에로 가는 걸정적인 솔로이다. 그래서 돌파구를 전투의 성과가 관가를 되는 운명의 판문이라고도 하는것이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전환적 국운을 열어야 할 때마다, 세로운 조선의 역사와 창조하고 보다 높은 명마부에 올라서야 할 때마다 그를 위한 끝과전으로서 천당, 천군, 천민이 흥동원되는 전투들을 발기하고 현명하게 이끌어왔다.

우리 당의 전투기록집을 다시 한번 펼쳐보자.

1974년의 7·0일전투!

말만 외워도 강산을 진감하던 혁명의 복소리가 퀸을 꽂았을것 같다. 그것은 불기능을 가능으로 한 천환시킨 기적이다.

전투가 벌어질 당시 나라의 혁명이 어떠했는가. 원료와 자재의 부족, 수송의 긴장상태으로 하여 그에 난간제 획수현의 전방을 편파할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것은 우리 당이 제7차전시한 6개년계획의 용대한 강령을 수행하는데 커다란 난관을 조성하고있었다.

이런 긴장하고 책임적인 시작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구상하신 돌파구이 바로 7·0일전투였다. 세상을 놀래운 유례없는 돌격전의 일정으로 하여 우리 조국은 후회와 좌절이 아니라 도전과 도전의 나래를 활짝 펴고 사회주의대건설의 전성기를 환희롭게 맞이할수 있는가. 어떤 사람들을 승리의 단상에 세워주는가.

돌격투사!

승리에로 향한 전진도상에 언제나 돌파구가 있듯이 그 돌파구앞에는 언제나 용맹한 돌격투사들이 있다.

얼마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세로일

에서 고였는 농약잔비누공장건설장을 찾으시며 일군들과 군인건설자들이 당 제7차

대회 결정판을 위한 200일전투의 영예로운 참전자, 돌격투사답게 새로운 기적을 보르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을 승리의 단상에 세워주는가.

돌격투사!

승리에로 향한 전진도상에 언제나 돌파구가 있듯이 그 돌파구앞에는 언제나 용맹한 돌격투사들이 있다.

얼마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세로일

에서 고였는 농약잔비누공장건설장을 찾으시며 일군들과 군인건설자들이 당 제7차

대회 결정판을 위한 200일전투의 영예로운 참전자, 돌격투사답게 새로운 기적을 보르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을 승리의 단상에 세워주는가.

돌격투사!

승리에로 향한 전진도상에 언제나 돌파구가 있듯이 그 돌파구앞에는 언제나 용맹한 돌격투사들이 있다.

얼마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세로일

에서 고였는 농약잔비누공장건설장을 찾으시며 일군들과 군인건설자들이 당 제7차

대회 결정판을 위한 200일전투의 영예로운 참전자, 돌격투사답게 새로운 기적을 보르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을 승리의 단상에 세워주는가.

돌격투사!

승리에로 향한 전진도상에 언제나 돌파구가 있듯이 그 돌파구앞에는 언제나 용맹한 돌격투사들이 있다.

얼마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세로일

에서 고였는 농약잔비누공장건설장을 찾으시며 일군들과 군인건설자들이 당 제7차

대회 결정판을 위한 200일전투의 영예로운 참전자, 돌격투사답게 새로운 기적을 보르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을 승리의 단상에 세워주는가.

돌격투사!

승리에로 향한 전진도상에 언제나 돌파구가 있듯이 그 돌파구앞에는 언제나 용맹한 돌격투사들이 있다.

얼마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세로일

에서 고였는 농약잔비누공장건설장을 찾으시며 일군들과 군인건설자들이 당 제7차

대회 결정판을 위한 200일전투의 영예로운 참전자, 돌격투사답게 새로운 기적을 보르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을 승리의 단상에 세워주는가.

돌격투사!

승리에로 향한 전진도상에 언제나 돌파구가 있듯이 그 돌파구앞에는 언제나 용맹한 돌격투사들이 있다.

얼마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세로일

에서 고였는 농약잔비누공장건설장을 찾으시며 일군들과 군인건설자들이 당 제7차

대회 결정판을 위한 200일전투의 영예로운 참전자, 돌격투사답게 새로운 기적을 보르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을 승리의 단상에 세워주는가.

돌격투사!

승리에로 향한 전진도상에 언제나 돌파구가 있듯이 그 돌파구앞에는 언제나 용맹한 돌격투사들이 있다.

얼마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세로일

에서 고였는 농약잔비누공장건설장을 찾으시며 일군들과 군인건설자들이 당 제7차

대회 결정판을 위한 200일전투의 영예로운 참전자, 돌격투사답게 새로운 기적을 보르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을 승리의 단상에 세워주는가.

돌격투사!

승리에로 향한 전진도상에 언제나 돌파구가 있듯이 그 돌파구앞에는 언제나 용맹한 돌격투사들이 있다.

얼마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세로일

에서 고였는 농약잔비누공장건설장을 찾으시며 일군들과 군인건설자들이 당 제7차

대회 결정판을 위한 200일전투의 영예로운 참전자, 돌격투사답게 새로운 기적을 보르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을 승리의 단상에 세워주는가.

돌격투사!

승리에로 향한 전진도상에 언제나 돌파구가 있듯이 그 돌파구앞에는 언제나 용맹한 돌격투사들이 있다.

얼마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세로일

에서 고였는 농약잔비누공장건설장을 찾으시며 일군들과 군인건설자들이 당 제7차

대회 결정판을 위한 200일전투의 영예로운 참전자, 돌격투사답게 새로운 기적을 보르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을 승리의 단상에 세워주는가.

돌격투사!

승리에로 향한 전진도상에 언제나 돌파구가 있듯이 그 돌파구앞에는 언제나 용맹한 돌격투사들이 있다.

얼마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세로일

에서 고였는 농약잔비누공장건설장을 찾으시며 일군들과 군인건설자들이 당 제7차

대회 결정판을 위한 200일전투의 영예로운 참전자, 돌격투사답게 새로운 기적을 보르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을 승리의 단상에 세워주는가.

돌격투사!

승리에로 향한 전진도상에 언제나 돌파구가 있듯이 그 돌파구앞에는 언제나 용맹한 돌격투사들이 있다.

얼마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세로일

에서 고였는 농약잔비누공장건설장을 찾으시며 일군들과 군인건설자들이 당 제7차

대회 결정판을 위한 200일전투의 영예로운 참전자, 돌격투사답게 새로운 기적을 보르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을 승리의 단상에 세워주는가.

돌격투사!

승리에로 향한 전진도상에 언제나 돌파구가 있듯이 그 돌파구앞에는 언제나 용맹한 돌격투사들이 있다.

얼마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세로일

에서 고였는 농약잔비누공장건설장을 찾으시며 일군들과 군인건설자들이 당 제7차

대회 결정판을 위한 200일전투의 영예로운 참전자, 돌격투사답게 새로운 기적을 보르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을 승리의 단상에 세워주는가.

돌격투사!

승리에로 향한 전진도상에 언제나 돌파구가 있듯이 그 돌파구앞에는 언제나 용맹한 돌격투사들이 있다.

얼마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세로일

에서 고였는 농약잔비누공장건설장을 찾으시며 일군들과 군인건설자들이 당 제7차

대회 결정판을 위한 200일전투의 영예로운 참전자, 돌격투사답게 새로운 기적을 보르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을 승리의 단상에 세워주는가.

돌격투사!

승리에로 향한 전진도상에 언제나 돌파구가 있듯이 그 돌파구앞에는 언제나 용맹한 돌격투사들이 있다.

얼마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세로일

에서 고였는 농약잔비누공장건설장을 찾으시며 일군들과

만리마속도에 박차를 가하며 총공격, 총진군 앞으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화주신
사회주의 강장건설
의 휘황한 설계도를
격동된 실상마다에
받아들이고 만리마속도 창조투쟁
에 한사람같이 펼쳐나선 인민경
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군
들과 조동계급이 일터마다에서
자랑한 승천포성을 편입 높이
울려가고 있다.

200일 전투 당시 도소 조
중앙지휘부에 통합된 자료에
따라 첫 유통일에 전력, 풍정
판, 선별 및 압연강재, 철도화물
수송방법으로 및 나게 정명
되었다. 통나루, 전기기연, 세면
비료와 비닐봉, 세면
트 등의 중요자료에 대해서도
상승전투목표들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제 강국건설은 혁신시기
우리 당과 국가가 품력을
증증하여야 할 기본선입니다.》

중요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 모두가 70일 전투에
이어 200일 전투에서도 기여
의 영예로운 승리가 되기 위한
창조적 노력에 힘쓰고 있다.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의
중심고리인 전력공업부문을 지
켜온 각자의 전력생산자들이 만
리마속도 창조의 앞장에서 기세
풀세 내달리며 매일 전력생산에
힘을 넘쳐 수행하고 있다.

수풍, 장장강, 무진강, 서부
수, 통천발전소를 비롯한 수력
발전판리국 아래 발전소들에서
풀풀피 퍼화하고, 발전설비
들의 호흡을 높여 매일 계획보
다 정한 배수 실현 *mwh*이상의

다발적, 련발적인 승천포성을 높이 울려간다

중요공업부문에서 첫 열흘 분전 투목표를 빛나게 결속

전력을 증산하고 있다. 평양화력
발전원 학기연소, 순천화력발전
소, 청천화력발전소의 전력생
산자들이 일련설비들의 일부하
적으로 수행하였다. 부산광산
합기연소, 은물광산, 세명광산
의 광부들도 광구미니에서 탄광
소리를 높이 울리며 만리마속도
날이 갈수록 더 높은 전력생산
성과가 기록되고 있다.

석탄공업성 아래 각지 판광
면 학기연소들에서 70일 전투
에 이어 1·2·3·4·5·6·7·8·9·10·11·
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39·40·41·42·43·44·45·46·47·48·49·49·50·51·52·53·54·55·56·57·58·59·59·60·61·62·63·64·65·66·67·68·69·69·70·71·72·73·74·75·76·77·78·79·79·80·81·82·83·84·85·86·87·88·89·89·90·91·92·93·94·95·96·97·98·99·99·100·101·102·103·104·105·106·107·108·109·110·111·112·113·114·115·116·117·118·119·119·120·121·122·123·124·125·126·127·127·128·129·129·130·131·132·133·133·134·135·135·136·136·137·137·138·138·139·139·140·140·141·141·142·142·143·143·144·144·145·145·146·146·147·147·148·148·149·149·150·150·151·151·152·152·153·153·154·154·155·155·156·156·157·157·158·158·159·159·160·160·161·161·162·162·163·163·164·164·165·165·166·166·167·167·168·168·169·169·170·170·171·171·172·172·173·173·174·174·175·175·176·176·177·177·178·178·179·179·180·180·181·181·182·182·183·183·184·184·185·185·186·186·187·187·188·188·189·189·190·190·191·191·192·192·193·193·194·194·195·195·196·196·197·197·198·198·199·199·200·200·201·201·202·202·203·203·204·204·205·205·206·206·207·207·208·208·209·209·210·210·211·211·212·212·213·213·214·214·215·215·216·216·217·217·218·218·219·219·220·220·221·221·222·222·223·223·224·224·225·225·226·226·227·227·228·228·229·229·230·230·231·231·232·232·233·233·234·234·235·235·236·236·237·237·238·238·239·239·240·240·241·241·242·242·243·243·244·244·245·245·246·246·247·247·248·248·249·249·250·250·251·251·252·252·253·253·254·254·255·255·256·256·257·257·258·258·259·259·260·260·261·261·262·262·263·263·264·264·265·265·266·266·267·267·268·268·269·269·270·270·271·271·272·272·273·273·274·274·275·275·276·276·277·277·278·278·279·279·280·280·281·281·282·282·283·283·284·284·285·285·286·286·287·287·288·288·289·289·290·290·291·291·292·292·293·293·294·294·295·295·296·296·297·297·298·298·299·299·300·300·301·301·302·302·303·303·304·304·305·305·306·306·307·307·308·308·309·309·310·310·311·311·312·312·313·313·314·314·315·315·316·316·317·317·318·318·319·319·320·320·321·321·322·322·323·323·324·324·325·325·326·326·327·327·328·328·329·329·330·330·331·331·332·332·333·333·334·334·335·335·336·336·337·337·338·338·339·339·340·340·341·341·342·342·343·343·344·344·345·345·346·346·347·347·348·348·349·349·350·350·351·351·352·352·353·353·354·354·355·355·356·356·357·357·358·358·359·359·360·360·361·361·362·362·363·363·364·364·365·365·366·366·367·367·368·368·369·369·370·370·371·371·372·372·373·373·374·374·375·375·376·376·377·377·378·378·379·379·380·380·381·381·382·382·383·383·384·384·385·385·386·386·387·387·388·388·389·389·390·390·391·391·392·392·393·393·394·394·395·395·396·396·397·397·398·398·399·399·400·400·401·401·402·402·403·403·404·404·405·405·406·406·407·407·408·408·409·409·410·410·411·411·412·412·413·413·414·414·415·415·416·416·417·417·418·418·419·419·420·420·421·421·422·422·423·423·424·424·425·425·426·426·427·427·428·428·429·429·430·430·431·431·432·432·433·433·434·434·435·435·436·436·437·437·438·438·439·439·440·440·441·441·442·442·443·443·444·444·445·445·446·446·447·447·448·448·449·449·450·450·451·451·452·452·453·453·454·454·455·455·456·456·457·457·458·458·459·459·460·460·461·461·462·462·463·463·464·464·465·465·466·466·467·467·468·468·469·469·470·470·471·471·472·472·473·473·474·474·475·475·476·476·477·477·478·478·479·479·480·480·481·481·482·482·483·483·484·484·485·485·486·486·487·487·488·488·489·489·490·490·491·491·492·492·493·493·494·494·495·495·496·496·497·497·498·498·499·499·500·500·501·501·502·502·503·503·504·504·505·505·506·506·507·507·508·508·509·509·510·510·511·511·512·512·513·513·514·514·515·515·516·516·517·517·518·518·519·519·520·520·521·521·522·522·523·523·524·524·525·525·526·526·527·527·528·528·529·529·530·530·531·531·532·532·533·533·534·534·535·535·536·536·537·537·538·538·539·539·540·540·541·541·542·542·543·543·544·544·545·545·546·546·547·547·548·548·549·549·550·550·551·551·552·552·553·553·554·554·555·555·556·556·557·557·558·558·559·559·560·560·561·561·562·562·563·563·564·564·565·565·566·566·567·567·568·568·569·569·570·570·571·571·572·572·573·573·574·574·575·575·576·576·577·577·578·578·579·579·580·580·581·581·582·582·583·583·584·584·585·585·586·586·587·587·588·588·589·589·590·590·591·591·592·592·593·593·594·594·595·595·596·596·597·597·598·598·599·599·600·600·601·601·602·602·603·603·604·604·605·605·606·606·607·607·608·608·609·609·610·610·611·611·612·612·613·613·614·614·615·615·616·616·617·617·618·618·619·619·620·620·621·621·622·622·623·623·624·624·625·625·626·626·627·627·628·628·629·629·630·630·631·631·632·632·633·633·634·634·635·635·636·636·637·637·638·638·639·639·640·640·641·641·642·642·643·643·644·644·645·645·646·646·647·647·648·648·649·649·650·650·651·651·652·652·653·653·654·654·655·655·656·656·657·657·658·658·659·659·660·660·661·661·662·662·663·663·664·664·665·665·666·666·667·667·668·668·669·669·670·670·671·671·672·672·673·673·674·674·675·675·676·676·677·677·678·678·679·679·680·680·681·681·682·682·683·683·684·684·685·685·686·686·687·687·688·688·689·689·690·690·691·691·692·692·693·693·694·694·695·695·696·696·697·697·698·698·699·699·700·700·701·701·702·702·703·703·704·704·705·705·706·706·707·707·708·708·709·709·710·710·711·711·712·712·713·713·714·714·715·715·716·716·717·717·718·718·719·719·720·720·721·721·722·722·723·723·724·724·725·725·726·726·727·727·728·728·729·729·730·730·731·731·732·732·733·733·734·734·735·735·736·736·737·737·738·738·739·739·740·740·741·741·742·742·743·743·744·744·745·745·746·746·747·747·748·748·749·749·750·750·751·751·752·752·753·753·754·754·755·755·756·756·757·757·758·758·759·759·760·760·761·761·762·762·763·763·764·764·765·765·766·766·767·767·768·768·769·769·770·770·771·771·772·772·773·773·774·774·775·775·776·776·777·777·778·778·779·779·780·780·781·781·782·782·783·783·784·784·785·785·786·786·787·787·788·788·789·789·790·790·791·791·792·792·793·793·794·794·795·795·796·796·797·797·798·798·799·799·800·800·801·801·802·802·803·803·804·804·805·805·806·806·807·807·808·808·809·809·810·810·811·811·812·812·813·813·814·814·815·815·816·816·817·817·818·818·819·819·820·820·821·821·822·822·823·823·824·824·825·825·826·826·827·827·828·828·829·829·830·830·831·831·832·832·833·833·834·834·835·835·836·836·837·837·838·838·839·839·840·840·841·841·842·842·843·843·844·844·845·845·846·846·847·847·848·848·849·849·850·850·851·851·852·852·853·853·854·854·855·855·856·856·857·857·858·858·859·859·860·860·861·861·862·862·863·863·864·864·865·865·866·866·867·867·868·868·869·869·870·870·871·871·872·872·873·873·874·874·875·875·876·876·877·877·878·878·879·879·880·880·881·881·882·882·883·8

미국은 우리 인민의 지향과 대세의 요구를 뚜 바로 보고 중대 결단을 내려야 한다

미합중국에 보내는 공개서한

평화로운 세계에서 민족민족의 번영을 이루하고 통일된 부강한 조국을 건설하려는 것은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지향이며 요구이다.

우리 천안군민은 이를 위해 견인불발의 의지로 연대와 세기를 이어 역사의 풍파를 헤치며 끝까지 투쟁해왔다.

얼마전에 열렸던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우리의 최고영도자께서는 민족자체의 힘으로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 국면을 향해 평화적 투입을 이목할에 대한 가장 정당하고 평화적 투입을 위한 후생에 한결같이 펼쳐나섰다.

새롭게 세워진 조국통일로서 방침은 조선반도문제해결과 세계평화보장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인 선언이다.

여기에는 민족주의의 가치, 민족대단위의 가치를 높이 들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편방세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장장 70여년에 달하는 민족분별사에 풍자부를 채고 무방비정책을 향한 조국을 기어이 일떠세우려는 민족의 열망과 의지는 물론 조선반도와 극동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세계인민들의 지향과 요구도 충실히 담겨져 있다.

사고와 판란이 옮바로마다 누구나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조선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체의 단합된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에 공감하고 그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미국만은 우리의 용당한 요구를 읊어들이며 대신 온탕치 못한 주장과 호칭적인 행동으로 평화와 통일로 향하고자 하는데 따라해야 한다는 법은 그 어디에도 없다.

일국의 폐권을 위한 천만부당하고 오만무관한 시도가 그 어느 시대를 막으려고 비참한 종말을 고한것은 절로 우연히 않다.

우리에 대한 미국의 적대성이 이처럼 근거로 타당성도 있는 천만부당한 것이며 우리 군대와 민민의 반미감정과 복수심은 미국의 조선침략사가 가져다준 너무나도 용당한 결심이다.

우리는 미국에 물고싶다.

조선침략 이후 수십년동안 미국이 남조선을 울고 침략하는 전장을 치르고 날을 막 대한 무력을 끌어들이고 각종 군사연습에 천문학적 액수의 탈리를 강물처럼 흘려놓았지만 파악은 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 대한 저배의 애을 이룩했는가 아니면 명예를 얻었는가.

우리의 신성한 강도에 대한 침략과 도발을 주호도 유풍지 않으려는 우리 군대와 민민의 우상같은 분노와 서슬푸른 자위의 용기 앞에서 미국의 굴진기 전쟁도박이 실패와 좌절을 면치 못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인된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 군대와 민민은 미국을 우리 민족에게 대를 두고 풀수 없는 한을 날뛰면서 속으로, 한 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민족대원의 원포로, 씨도 없이 철저히 소집해야 할 침략의 무리로 저주하고 규탄하고 있다.

우리 공화국이 창건될 때로부터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고수하고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 인민의 지향과 법원, 정의의 위엄에 대한 포악무도한

도정이다.

불의에 타협을 모르며 오직 정의와 정의에 사는 우리 군대와 민민이다.

선행하고 순결한 우리 민민은 언제 한번 미국을 침해한적도 없으며 미국의 리익에 해되는 일을 한적은 더욱 없다.

아직은 미국왕을 향해 그림히 쟁이놓은 통한 한발 날려본적 없는 우리 민민이다.

이 엄연한 사실 앞에서 미국으로서는 우리를 적대시하고 어떤 정당한 리용과 구실로 내대기 끝이었을 것이다.

있다면 오직 우리의 사상과 제도, 우리의 정경과 주장이 미국과 다르다는 그 한가지뿐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타국화된 오늘의 세계에서, 자주에 대한 인류의 지향이 막을 수 없는 흐름으로 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를 적대할 그 무슨 근거로 될수 있겠는가.

사상과 제도의 선택은 누구도 강요할 수 없는 그 나마, 그 민족, 그 민족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이 자리에서 피부도 언어도 리념도 서로 각이한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자기 식의 사상과 감정을 지니고 자기 식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 모두가 미국을 찾고 미국에 하자는대로 따라해야 한다는 법은 그 어디에도 없다.

일국의 폐권을 위한 천만부당하고 오만무관한 시도가 그 어느 시대를 막으려고 비참한 종말을 고한것은 절로 우연히 않다.

이것은 전적으로 남조선을 구동최대의 학악고도 만들고 침략무력을 끌어없이 증강하여 각종 북침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려놓고 있는 미국의 호전적임에 기인된다.

우리는 미국에 물고싶다.

조선반도는 세계가 공인하는 최대의 옆정지역이며 가장 위험천만한 핵전쟁의 발원지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남조선을 구동최대의 학악고도 만들고 침략무력을 끌어없이 증강하여 각종 북침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려놓고 있는 미국의 호전적임에 기인된다.

우리는 미국에 물고싶다.

조선침략 이후 수십년동안 미국이 남조선을 울고 침략하는 전장을 치르고 날을 막 대한 무력을 끌어들이고 각종 군사연습에 천문학적 액수의 탈리를 강물처럼 흘려놓았지만 파악은 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 대한 저배의 애을 이룩했는가 아니면 명예를 얻었는가.

우리는 미국에 물고싶다.

조선침략 이후 수십년동안 미국이 남조선을 울고 침략하는 전장을 치르고 날을 막 대한 무력을 끌어들이고 각종 군사연습에 천문학적 액수의 탈리를 강물처럼 흘려놓았지만 파악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미국에 물고싶다.

조선침략 이후 수십년동안 미국이 남조선을 울고 침략하는 전장을 치르고 날을 막 대한 무력을 끌어들이고 각종 군사연습에 천문학적 액수의 탈리를 강물처럼 흘려놓았지만 파악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미국에 물고싶다.

조선침략 이후 수십년동안 미국이 남조선을 울고 침략하는 전장을 치르고 날을 막 대한 무력을 끌어들이고 각종 군사연습에 천문학적 액수의 탈리를 강물처럼 흘려놓았지만 파악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미국에 물고싶다.

조선침략 이후 수십년동안 미국이 남조선을 울고 침략하는 전장을 치르고 날을 막 대한 무력을 끌어들이고 각종 군사연습에 천문학적 액수의 탈리를 강물처럼 흘려놓았지만 파악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미국에 물고싶다.

조선침략 이후 수십년동안 미국이 남조선을 울고 침략하는 전장을 치르고 날을 막 대한 무력을 끌어들이고 각종 군사연습에 천문학적 액수의 탈리를 강물처럼 흘려놓았지만 파악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미국에 물고싶다.

조선침략 이후 수십년동안 미국이 남조선을 울고 침략하는 전장을 치르고 날을 막 대한 무력을 끌어들이고 각종 군사연습에 천문학적 액수의 탈리를 강물처럼 흘려놓았지만 파악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미국에 물고싶다.

조선침략 이후 수십년동안 미국이 남조선을 울고 침략하는 전장을 치르고 날을 막 대한 무력을 끌어들이고 각종 군사연습에 천문학적 액수의 탈리를 강물처럼 흘려놓았지만 파악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미국에 물고싶다.

조선침략 이후 수십년동안 미국이 남조선을 울고 침략하는 전장을 치르고 날을 막 대한 무력을 끌어들이고 각종 군사연습에 천문학적 액수의 탈리를 강물처럼 흘려놓았지만 파악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미국에 물고싶다.

조선침략 이후 수십년동안 미국이 남조선을 울고 침략하는 전장을 치르고 날을 막 대한 무력을 끌어들이고 각종 군사연습에 천문학적 액수의 탈리를 강물처럼 흘려놓았지만 파악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미국에 물고싶다.

조선침략 이후 수십년동안 미국이 남조선을 울고 침략하는 전장을 치르고 날을 막 대한 무력을 끌어들이고 각종 군사연습에 천문학적 액수의 탈리를 강물처럼 흘려놓았지만 파악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미국에 물고싶다.

조선침략 이후 수십년동안 미국이 남조선을 울고 침략하는 전장을 치르고 날을 막 대한 무력을 끌어들이고 각종 군사연습에 천문학적 액수의 탈리를 강물처럼 흘려놓았지만 파악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미국에 물고싶다.

조선침략 이후 수십년동안 미국이 남조선을 울고 침략하는 전장을 치르고 날을 막 대한 무력을 끌어들이고 각종 군사연습에 천문학적 액수의 탈리를 강물처럼 흘려놓았지만 파악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미국에 물고싶다.

조선침략 이후 수십년동안 미국이 남조선을 울고 침략하는 전장을 치르고 날을 막 대한 무력을 끌어들이고 각종 군사연습에 천문학적 액수의 탈리를 강물처럼 흘려놓았지만 파악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미국에 물고싶다.

조선침략 이후 수십년동안 미국이 남조선을 울고 침략하는 전장을 치르고 날을 막 대한 무력을 끌어들이고 각종 군사연습에 천문학적 액수의 탈리를 강물처럼 흘려놓았지만 파악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미국에 물고싶다.

조선침략 이후 수십년동안 미국이 남조선을 울고 침략하는 전장을 치르고 날을 막 대한 무력을 끌어들이고 각종 군사연습에 천문학적 액수의 탈리를 강물처럼 흘려놓았지만 파악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미국에 물고싶다.

조선침략 이후 수십년동안 미국이 남조선을 울고 침략하는 전장을 치르고 날을 막 대한 무력을 끌어들이고 각종 군사연습에 천문학적 액수의 탈리를 강물처럼 흘려놓았지만 파악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미국에 물고싶다.

조선침략 이후 수십년동안 미국이 남조선을 울고 침략하는 전장을 치르고 날을 막 대한 무력을 끌어들이고 각종 군사연습에 천문학적 액수의 탈리를 강물처럼 흘려놓았지만 파악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미국에 물고싶다.

조선침략 이후 수십년동안 미국이 남조선을 울고 침략하는 전장을 치르고 날을 막 대한 무력을 끌어들이고 각종 군사연습에 천문학적 액수의 탈리를 강물처럼 흘려놓았지만 파악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미국에 물고싶다.

조선침략 이후 수십년동안 미국이 남조선을 울고 침략하는 전장을 치르고 날을 막 대한 무력을 끌어들이고 각종 군사연습에 천문학적 액수의 탈리를 강물처럼 흘려놓았지만 파악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미국에 물고싶다.

조선침략 이후 수십년동안 미국이 남조선을 울고 침략하는 전장을 치르고 날을 막 대한 무력을 끌어들이고 각종 군사연습에 천문학적 액수의 탈리를 강물처럼 흘려놓았지만 파악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미국에 물고싶다.

조선침략 이후 수십년동안 미국이 남조선을 울고 침략하는 전장을 치르고 날을 막 대한 무력을 끌어들이고 각종 군사연습에 천문학적 액수의 탈리를 강물처럼 흘려놓았지만 파악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미국에 물고싶다.

조선침략 이후 수십년동안 미국이 남조선을 울고 침략하는 전장을 치르고 날을 막 대한 무력을 끌어들이고 각종 군사연습에 천문학적 액수의 탈리를 강물처럼 흘려놓았지만 파악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미국에 물고싶다.

조선침략 이후 수십년동안 미국이 남조선을 울고 침략하는 전장을 치르고 날을 막 대한 무력을 끌어들이고 각종 군사연습에 천문학적 액수의 탈리를 강물처럼 흘려놓았지만 파악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미국에 물고싶다.

조선침략 이후 수십년동안 미국이 남조선을 울고 침략하는 전장을 치르고 날을 막 대한 무력을 끌어들이고 각종 군사연습에 천문학적 액수의 탈리를 강물처럼 흘려놓았지만 파악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미국에 물고싶다.

조선침략 이후 수십년동안 미국이 남조선을 울고 침략하는 전장을 치르고 날을 막 대한 무력을 끌어들이고 각종 군사연습에 천문학적 액수의 탈리를 강물처럼 흘려놓았지만 파악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미국에 물고싶다.

조선침략 이후 수십년동안 미국이 남조선을 울고 침략하는 전장을 치르고 날을 막 대한 무력을 끌어들이고 각종 군사연습에 천문학적 액수의 탈리를 강물처럼 흘려놓았지만 파악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미국에 물고싶다.

조선침략 이후 수십년동안 미국이 남조선을 울고 침략하는 전장을 치르고 날을 막 대한 무력을 끌어들이고 각종 군사연습에 천문학적 액수의 탈리를 강물처럼 흘려놓았지만 파악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미국에 물고싶다.

조선침략 이후 수십년동안 미국이 남조선을 울고 침략하는 전장을 치르고 날을 막 대한 무력을 끌어들이고 각종 군사연습에 천문학적 액수의 탈리를 강물처럼 흘려놓았지만 파악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미국에 물고싶다.

조선침략 이후 수십년동안 미국이 남조선을 울고 침략하는 전장을 치르고 날을 막 대한 무력을 끌어들이고 각종 군사연습에 천문학적 액수의 탈리를 강물처럼 흘려놓았지만 파악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미국에 물고싶다.

조선침략 이후 수십년동안 미국이 남조선을 울고 침략하는 전장을 치르고 날을 막 대한 무력을 끌어들이고 각종 군사연습에 천문학적 액수의 탈리를 강물처럼 흘려놓았지만 파악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미국에 물고싶다.

조선침략 이후 수십년동안 미국이 남조선을 울고 침략하는 전장을 치르고 날을 막 대한 무력을 끌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 만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만세!》

5월의 하늘가에 메아리 칭송의 목소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보시고 사회주의위업, 주체혁명위업 활성화 위한 새로운 피정표 세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진행될 때로부터 한발이 되었다. 세계 각국의 3단어 출판보도들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대양상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영광사진 묻힌 들을 정중히 개나라와 지역에서 전보적인 인들과 단체들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경축하는 태세로운 행사들로 우리 당에 열렬한 축하의 인사와 전을 일으켰다.

위대한 당에

드리는 만민의 뜨거운 지성

세계가 5월의 주체조선으로 호평을 맞았고 전보적인 인류의 마음과 마음이 영광의 대회장으로 춤을 흘려왔다.

당 제7차대회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중국, 토씨야, 우바, 통풀, 수리야, 메히로, 우간다, 탄자니아, 모잠비크 등 많은 나라의 당 및 국가 수반들과 정당, 단체들, 국제 및 지역 기구와 각계 인사들이 730여건의 축전과 축하편지를 드리었으며 310여상의 바구니들을 보내왔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축하하게 계승하시며 우리 혁명과 함께 기록에 명하고 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인도네시아 선물자당에서 명에 지도자 칭호를, 브라질 팔스-데-나우의 통신에서는 고고상장인 우이스 까풀로스 브레스페스상장 우바, 멀바루우산공단에서는 《충실히》장을 수여해드렸다.

만마련행련대 쟁광전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정의의 토씨야당 대표인 주당과 민주봉고로동당, 통총비서, 담화대체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도이칠란드반제연단 위원장 등 각 정당, 단체들 및 인사들은 해당 나라 주체 우를 모시고 70여건의 글, 시가 작품들을 창작발표하였다.

로씨야의 문필가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고 천출위인들의 명도를 통해 우리 당의 자랑찬 정을 소개하는 《시집》, 《시주성을 지향하는 전보적인 인류의 통동의 경시》 등의 제목으로 사회주의위업과 세계자주권을 향유하는 영광 드린다.

당 제7차대회를 우리 인민파 향에 끌게끔 경축하려는 만민의 열망이 날이 갈수록 뜨겁게 불을 끌고는 가운데 5대목의 각계 인사들과 전보적인 인민들로 부른원들을 모시고 김정은동지에게 하신 개회식의 전반내용은

지지성원을 보내면서 타할없는 칭송과 찬란을 표시하였다.

세계 각국의 3단어 출판보도들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대양상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영광사진 묻힌 들을 정중히 개나라와 지역에서 전보적인 인들과 단체들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경축하는 태세로운 행사를로 우리 당에 열렬한 축하의 인사와 전을 일으켰다.

대회가 가지는 가장 뜻깊은 의의가 있다고 진정에 넘쳐 말하였다.

당 제7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중앙위원회 사업총회보고를 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우수무형하신 유풍이 온 행성을 전감시키면 5월 7일 아프리카 지역의 한글인 날아프리카에서 주체사상구조지도 새로 걸성되었다.

각국의 언론들도 《김정은각하》의 명도따라 조선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훈련한 실계도를 절차로 펼쳐서 대회를 개최하고 청진체육장을 향해 향성과 함께 우리 나라 영화와 노래를 조선로동당으로 향해 향성과 함께 신문과 인터넷으로 네로 제7차대회 보고를 부문별로 보도하면서 김정은각하께서는 보고에서 나рав의 경제발전과 민생을 향상시켜 최강국으로 번영하는 조선을 보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파의 신선험회 홍보까지부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라는 특별판을 새로 설정하고 청진체육장을 향해 향성과 함께 우리 나라 영화와 노래를 조선로동당으로 향해 향성과 함께 신문과 인터넷으로 네로 제7차대회 보고를 부문별로 보도하면서 김정은각하께서는 보고에서 나рав의 경제발전과 민생을 향상시켜 최강국으로 번영하는 조선을 보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각국의 언론들도 《김정은각하》의 명도따라 조선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훈련한 실계도를 절차로 펼쳐서 대회를 개최하고 청진체육장을 향해 향성과 함께 우리 나라 영화와 노래를 조선로동당으로 향해 향성과 함께 신문과 인터넷으로 네로 제7차대회 보고를 부문별로 보도하면서 김정은각하께서는 보고에서 나рав의 경제발전과 민생을 향상시켜 최강국으로 번영하는 조선을 보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국의 언론들도 《김정은각하》의 명도따라 조선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훈련한 실계도를 절차로 펼쳐서 대회를 개최하고 청진체육장을 향해 향성과 함께 우리 나라 영화와 노래를 조선로동당으로 향해 향성과 함께 신문과 인터넷으로 네로 제7차대회 보고를 부문별로 보도하면서 김정은각하께서는 보고에서 나рав의 경제발전과 민생을 향상시켜 최강국으로 번영하는 조선을 보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국의 언론들도 《김정은각하》의 명도따라 조선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훈련한 실계도를 절차로 펼쳐서 대회를 개최하고 청진체육장을 향해 향성과 함께 우리 나라 영화와 노래를 조선로동당으로 향해 향성과 함께 신문과 인터넷으로 네로 제7차대회 보고를 부문별로 보도하면서 김정은각하께서는 보고에서 나рав의 경제발전과 민생을 향상시켜 최강국으로 번영하는 조선을 보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국의 언론들도 《김정은각하》의 명도따라 조선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훈련한 실계도를 절차로 펼쳐서 대회를 개최하고 청진체육장을 향해 향성과 함께 우리 나라 영화와 노래를 조선로동당으로 향해 향성과 함께 신문과 인터넷으로 네로 제7차대회 보고를 부문별로 보도하면서 김정은각하께서는 보고에서 나рав의 경제발전과 민생을 향상시켜 최강국으로 번영하는 조선을 보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국의 언론들도 《김정은각하》의 명도따라 조선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훈련한 실계도를 절차로 펼쳐서 대회를 개최하고 청진체육장을 향해 향성과 함께 우리 나라 영화와 노래를 조선로동당으로 향해 향성과 함께 신문과 인터넷으로 네로 제7차대회 보고를 부문별로 보도하면서 김정은각하께서는 보고에서 나рав의 경제발전과 민생을 향상시켜 최강국으로 번영하는 조선을 보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국의 언론들도 《김정은각하》의 명도따라 조선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훈련한 실계도를 절차로 펼쳐서 대회를 개최하고 청진체육장을 향해 향성과 함께 우리 나라 영화와 노래를 조선로동당으로 향해 향성과 함께 신문과 인터넷으로 네로 제7차대회 보고를 부문별로 보도하면서 김정은각하께서는 보고에서 나рав의 경제발전과 민생을 향상시켜 최강국으로 번영하는 조선을 보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국의 언론들도 《김정은각하》의 명도따라 조선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훈련한 실계도를 절차로 펼쳐서 대회를 개최하고 청진체육장을 향해 향성과 함께 우리 나라 영화와 노래를 조선로동당으로 향해 향성과 함께 신문과 인터넷으로 네로 제7차대회 보고를 부문별로 보도하면서 김정은각하께서는 보고에서 나рав의 경제발전과 민생을 향상시켜 최강국으로 번영하는 조선을 보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국의 언론들도 《김정은각하》의 명도따라 조선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훈련한 실계도를 절차로 펼쳐서 대회를 개최하고 청진체육장을 향해 향성과 함께 우리 나라 영화와 노래를 조선로동당으로 향해 향성과 함께 신문과 인터넷으로 네로 제7차대회 보고를 부문별로 보도하면서 김정은각하께서는 보고에서 나рав의 경제발전과 민생을 향상시켜 최강국으로 번영하는 조선을 보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국의 언론들도 《김정은각하》의 명도따라 조선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훈련한 실계도를 절차로 펼쳐서 대회를 개최하고 청진체육장을 향해 향성과 함께 우리 나라 영화와 노래를 조선로동당으로 향해 향성과 함께 신문과 인터넷으로 네로 제7차대회 보고를 부문별로 보도하면서 김정은각하께서는 보고에서 나рав의 경제발전과 민생을 향상시켜 최강국으로 번영하는 조선을 보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국의 언론들도 《김정은각하》의 명도따라 조선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훈련한 실계도를 절차로 펼쳐서 대회를 개최하고 청진체육장을 향해 향성과 함께 우리 나라 영화와 노래를 조선로동당으로 향해 향성과 함께 신문과 인터넷으로 네로 제7차대회 보고를 부문별로 보도하면서 김정은각하께서는 보고에서 나рав의 경제발전과 민생을 향상시켜 최강국으로 번영하는 조선을 보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국의 언론들도 《김정은각하》의 명도따라 조선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훈련한 실계도를 절차로 펼쳐서 대회를 개최하고 청진체육장을 향해 향성과 함께 우리 나라 영화와 노래를 조선로동당으로 향해 향성과 함께 신문과 인터넷으로 네로 제7차대회 보고를 부문별로 보도하면서 김정은각하께서는 보고에서 나рав의 경제발전과 민생을 향상시켜 최강국으로 번영하는 조선을 보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국의 언론들도 《김정은각하》의 명도따라 조선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훈련한 실계도를 절차로 펼쳐서 대회를 개최하고 청진체육장을 향해 향성과 함께 우리 나라 영화와 노래를 조선로동당으로 향해 향성과 함께 신문과 인터넷으로 네로 제7차대회 보고를 부문별로 보도하면서 김정은각하께서는 보고에서 나рав의 경제발전과 민생을 향상시켜 최강국으로 번영하는 조선을 보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국의 언론들도 《김정은각하》의 명도따라 조선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훈련한 실계도를 절차로 펼쳐서 대회를 개최하고 청진체육장을 향해 향성과 함께 우리 나라 영화와 노래를 조선로동당으로 향해 향성과 함께 신문과 인터넷으로 네로 제7차대회 보고를 부문별로 보도하면서 김정은각하께서는 보고에서 나рав의 경제발전과 민생을 향상시켜 최강국으로 번영하는 조선을 보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국의 언론들도 《김정은각하》의 명도따라 조선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훈련한 실계도를 절차로 펼쳐서 대회를 개최하고 청진체육장을 향해 향성과 함께 우리 나라 영화와 노래를 조선로동당으로 향해 향성과 함께 신문과 인터넷으로 네로 제7차대회 보고를 부문별로 보도하면서 김정은각하께서는 보고에서 나рав의 경제발전과 민생을 향상시켜 최강국으로 번영하는 조선을 보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국의 언론들도 《김정은각하》의 명도따라 조선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훈련한 실계도를 절차로 펼쳐서 대회를 개최하고 청진체육장을 향해 향성과 함께 우리 나라 영화와 노래를 조선로동당으로 향해 향성과 함께 신문과 인터넷으로 네로 제7차대회 보고를 부문별로 보도하면서 김정은각하께서는 보고에서 나рав의 경제발전과 민생을 향상시켜 최강국으로 번영하는 조선을 보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국의 언론들도 《김정은각하》의 명도따라 조선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훈련한 실계도를 절차로 펼쳐서 대회를 개최하고 청진체육장을 향해 향성과 함께 우리 나라 영화와 노래를 조선로동당으로 향해 향성과 함께 신문과 인터넷으로 네로 제7차대회 보고를 부문별로 보도하면서 김정은각하께서는 보고에서 나рав의 경제발전과 민생을 향상시켜 최강국으로 번영하는 조선을 보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국의 언론들도 《김정은각하》의 명도따라 조선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훈련한 실계도를 절차로 펼쳐서 대회를 개최하고 청진체육장을 향해 향성과 함께 우리 나라 영화와 노래를 조선로동당으로 향해 향성과 함께 신문과 인터넷으로 네로 제7차대회 보고를 부문별로 보도하면서 김정은각하께서는 보고에서 나рав의 경제발전과 민생을 향상시켜 최강국으로 번영하는 조선을 보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국의 언론들도 《김정은각하》의 명도따라 조선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훈련한 실계도를 절차로 펼쳐서 대회를 개최하고 청진체육장을 향해 향성과 함께 우리 나라 영화와 노래를 조선로동당으로 향해 향성과 함께 신문과 인터넷으로 네로 제7차대회 보고를 부문별로 보도하면서 김정은각하께서는 보고에서 나рав의 경제발전과 민생을 향상시켜 최강국으로 번영하는 조선을 보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국의 언론들도 《김정은각하》의 명도따라 조선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훈련한 실계도를 절차로 펼쳐서 대회를 개최하고 청진체육장을 향해 향성과 함께 우리 나라 영화와 노래를 조선로동당으로 향해 향성과 함께 신문과 인터넷으로 네로 제7차대회 보고를 부문별로 보도하면서 김정은각하께서는 보고에서 나рав의 경제발전과 민생을 향상시켜 최강국으로 번영하는 조선을 보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국의 언론들도 《김정은각하》의 명도따라 조선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훈련한 실계도를 절차로 펼쳐서 대회를 개최하고 청진체육장을 향해 향성과 함께 우리 나라 영화와 노래를 조선로동당으로 향해 향성과 함께 신문과 인터넷으로 네로 제7차대회 보고를 부문별로 보도하면서 김정은각하께서는 보고에서 나рав의 경제발전과 민생을 향상시켜 최강국으로 번영하는 조선을 보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국의 언론들도 《김정은각하》의 명도따라 조선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훈련한 실계도를 절차로 펼쳐서 대회를 개최하고 청진체육장을 향해 향성과 함께 우리 나라 영화와 노래를 조선로동당으로 향해 향성과 함께 신문과 인터넷으로 네로 제7차대회 보고를 부문별로 보도하면서 김정은각하께서는 보고에서 나рав의 경제발전과 민생을 향상시켜 최강국으로 번영하는 조선을 보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국의 언론들도 《김정은각하》의 명도따라 조선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훈련한 실계도를 절차로 펼쳐서 대회를 개최하고 청진체육장을 향해 향성과 함께 우리 나라 영화와 노래를 조선로동당으로 향해 향성과 함께 신문과 인터넷으로 네로 제7차대회 보고를 부문별로 보도하면서 김정은각하께서는 보고에서 나рав의 경제발전과 민생을 향상시켜 최강국으로 번영하는 조선을 보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국의 언론들도 《김정은각하》의 명도따라 조선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훈련한 실계도를 절차로 펼쳐서 대회를 개최하고 청진체육장을 향해 향성과 함께 우리 나라 영화와 노래를 조선로동당으로 향해 향성과 함께 신문과 인터넷으로 네로 제7차대회 보고를 부문별로 보도하면서 김정은각하께서는 보고에서 나рав의 경제발전과 민생을 향상시켜 최강국으로 번영하는 조선을 보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국의 언론들도 《김정은각하》의 명도따라 조선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훈련한 실계도를 절차로 펼쳐서 대회를 개최하고 청진체육장을 향해 향성과 함께 우리 나라 영화와 노래를 조선로동당으로 향해 향성과 함께 신문과 인터넷으로 네로 제7차대회 보고를 부문별로 보도하면서 김정은각하께서는 보고에서 나рав의 경제발전과 민생을 향상시켜 최강국으로 번영하는 조선을 보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국의 언론들도 《김정은각하》의 명도따라 조선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훈련한 실계도를 절차로 펼쳐서 대회를 개최하고 청진체육장을 향해 향성과 함께 우리 나라 영화와 노래를 조선로동당으로 향해 향성과 함께 신문과 인터넷으로 네로 제7차대회 보고를 부문별로 보도하면서 김정은각하께서는 보고에서 나рав의 경제발전과 민생을 향상시켜 최강국으로 번영하는 조선을 보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국의 언론들도 《김정은각하》의 명도따라 조선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훈련한 실계도를 절차로 펼쳐서 대회를 개최하고 청진체육장을 향해 향성과 함께 우리 나라 영화와 노래를 조선로동당으로 향해 향성과 함께 신문과 인터넷으로 네로 제7차대회 보고를 부문별로 보도하면서 김정은각하께서는 보고에서 나рав의 경제발전과 민생을 향상시켜 최강국으로 번영하는 조선을 보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국의 언론들도 《김정은각하》의 명도따라 조선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훈련한 실계도를 절차로 펼쳐서 대회를 개최하고 청진체육장을 향해 향성과 함께 우리 나라 영화와 노래를 조선로동당으로 향해 향성과 함께 신문과 인터넷으로 네로 제7차대회 보고를 부문별로 보도하면서 김정은각하께서는 보고에서 나рав의 경제발전과 민생을 향상시켜 최강국으로 번영하는 조선을 보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국의 언론들도 《김정은각하》의 명도따라 조선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훈련한 실계도를 절차로 펼쳐서 대회를 개최하고 청진체육장을 향해 향성과 함께 우리 나라 영화와 노래를 조선로동당으로 향해 향성과 함께 신문과 인터넷으로 네로 제7차대회 보고를 부문별로 보도하면서 김정은각하께서는 보고에서 나рав의 경제발전과 민생을 향상시켜 최강국으로 번영하는 조선을 보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